

8 스포츠 · 문화

# 2025 고향컵 종료... [야구] 지리, 자율전공, [축구] 에미넌스, [농구] 치대 유닛이 우승컵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그런지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 [축구-10년만에 되찾은 왕좌]

지난 2일 대운동장에서 자율전공학부 ‘에미넌스’와 경영학과 ‘한발’이 결승전을 치렀다.

10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렸던 에미넌스와 지난해 우승팀 한발의 경기였던 만큼 큰 관심이 쏠렸다. 각 팀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과 일반 관중 등 100명 이상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많은 이목이 쏠린 경기였던 만큼, 경기 내용도 극적이었다. 전반 시작 5분 만에 한발이 선제골을 넣어 앞서 나갔다.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서며 에미넌스가 동점 골을 넣었고,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아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연장 후반 종료 5분 전, 에미넌스 신우진(경영학 2024) 선수의 패스를 받은 김동현(글로벌리더학 2020)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 극적인 역전 골로 경기는 2-1, 에미넌스의 승리로 끝났다.

에미넌스 주장 백성현(자율전공학부 2021) 씨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역전 골로 승부를 결정지은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2025 고향컵서 야구에 지리학과 ‘지오베이스’가, 축구는 자율전공학부 ‘에미넌스’가, 농구는 치대 ‘유닛’이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이서현 기자)

[서울] 지난 2일 2025 고향컵이 야구, 축구, 농구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각 학과와 단과대 소속 동아리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야구에서는 지리학과 ‘지오베이스’, 축구에서는 자율전공학부 ‘에미넌스’ 농구에서는 치대 ‘유닛’이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1,2=이서현 기자)(사진3=조한음 기자)

### [야구-홈런으로 우승까지]

지난달 31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지리학과 ‘지오베이스’와 정경대 ‘구리스’가 맞붙었다. 지오베이스는 구리스를 상대로 8-1로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오베이스는 3회 초, 한호성(지리학 2024) 선수의 홈런을 시작으로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후 안정적인 수비와 추가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승리를 확정 지었다.

지오베이스 주장 김민수(지리학 2021) 씨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끝까지 집중된 팀원에게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선후배의 우승을 직관하러 대운동장을 찾은 이주영(지리학 2022) 씨는 “결승이라

### [농구-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같은 날 네오관 농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치대 ‘유닛’과 호관대 ‘무브먼트’가 맞붙었다. 유닛이 51-35로 승리하며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씻었다.

무브먼트의 첫 득점으로 경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1쿼터는 15-7로 유닛이 앞선 채 마무리됐다. 2쿼터 또한 유닛이 앞서는 흐름이 계속됐

고, 3쿼터에 점수를 벌린 유닛은 51-3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유닛 주장 염승훈(치의예 2022) 씨는 “작년 고향컵과 고향체전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열심히 훈련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농구 결승전을 끝으로 2025 고향

컵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고향대회 운영위원장 김민수(지리학 2021) 씨는 “모든 종목에서 많은 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 감사하다”며 “일정 조율과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구장과 대운동장 시설이 열악해 충분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 한의학, 한류, 동사의 의미...출판문화원 신간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신작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 ‘노비노 건강법’, ‘동사 수업’ 이 출간됐다. 세 권의 책을 소개한다.

### [노비노 건강법](이재동 외 저)

한의학은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바라보고, 같은 증상이나 질환도 에너지의 생성, 순환 등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린다. 책의 저자인 우리학교 한의대 이재동(한의학), 이수지(침구), 홍예진(침구) 교수는 한의학을 통해 내 몸의 맞춤 생활 건강법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한의학을 통해 식생활, 운동, 수면 관리, 다이어트 등의 실생활 문제에서 ‘나를 살리는 에너지 플랜’을 찾는 방법을 조언한다.

그러나 이 책이 비단 한의학적 조언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의

학과 서양의학의 차이, 한방치료법의 종류와 같은 한의학에 대한 흔한 궁금증에 대한 답도 함께 담겨있다. 더불어 근골격계, 신경계, 안과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도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해 실제적인 조언을 담았다.

### [2025 K-콘텐츠: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안승범 외 저)

이 책은 세계화의 가장 구체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실감토록 해주는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분석한다. <파묘>, <눈물의 여왕>, 뉴진스의 <Supernatural>, <서진이네 2>, <스텔라 블레이드>, <세이렌: 악당과 계약가족이 되었다>를 한국, 외국 필진이 분석 및 평론한다.

이중 작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의 조한기 학술연구교수는 ‘과잉의 미학’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한다. 드라마는 비교적 현실



차례대로 『노비노 건강법』,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 『동사 수업』이다. (사진=출판문화원 제공)

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이들이 비일상적인 상황에 빠지도록 한다. 이런 설정은 시청자가 그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임을 알더라도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뉴진스의 <Supernatural>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띈다. 일본 불교대학종합연구소의 야마모토 조호 촉탁연구원은 이 음악이 글로벌 K-팝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어 냈다고 평했

다. 상업적, 음악적으로 모두 큰 혁신을 이뤄낸 데에 더한 것이다. 기존 한정판 굿즈 판매, 앨범 판매에 크게 의존했던 경향성에서 벗어나 틱톡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댄스 챌린지에 참가하고 곡을 공유하면서 곡이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악적으로는 강력한 드럼 비트와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했으면서도, 신시사이저를 잘 활용해 세련된 음

색을 만들어냈다. 신시사이저는 음향으로 변환될 수 있는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전자 악기다.

### [동사 수업](이병수 저)

후마 이병수 교수의 『동사 수업』은 이색적인 구성을 가졌다. 이 책은 ‘사랑하다’, ‘존경하다’, ‘탐구하다’와 같은 ‘동사’에 초점을 맞춰 그와 관련된 고전의 내용과 함께 동사의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본다.

저자는 동사 ‘사랑하다’를 살펴보기 위해 플라톤의 『향연』을 함께 살핀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며,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는 사랑이 현재의 과업이고 숙명이며, 오늘날의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감, 사랑, 행동, 표현, 열정과 관련된 동사에 대한 새롭고 깊은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고전을 통해 동사들에 관한 철학적 물음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태도와 사유의 방식을 성찰하게 만든다.